

우리 아이들이 좋은 세상에서 자라고 있다고 여기십니까?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회가 되면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였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산모의 우울, 아내폭력, 경제적 어려움, 좋지 않은 주거환경 등은 생애 초기 아동을 위협합니다. 여러 아이가 이런 학대의 상황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가정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종류의 취약성을 경험하게 됩니다. 의료서비스가 산모와 신생아의 사망률을 낮추었지만, 건강한 성장발달을 가로막는 수많은 위험 속에 우리 아이들은 놓여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현대성의 역설(modernity's paradox)이 한국 사회를 뒤덮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 당연할 것만 같았지만 이 사회에서는 무척 힘든 일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힘겨운 육아의 현실을 극복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애 초기 육아를 돕고, 우리 사회의 모든 아이가 건강하게 삶의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2013년도부터 '서울아기 건강첫걸음사업' (www.ourbaby.seoul.kr)을 실시해 왔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위한 공평한 출발' 을 모토로 한 이 사업에 많은 산모와 가족들이 참여하였고,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사업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과학적으로 검증된 프로그램을 국내로 도입하여 우리나라에 맞는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없었던 영유아건강 간호사가 매년 배출되어, 서울시 22개 자치구에서 출산가정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의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의 경험과 성과, 사업의 효과 평가 연구결과를 전국의 보건행정, 보건사업 담당자들과 학계에 소개하고, 사업의 향후 과제에 대한 학술적, 정책적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6월 27일(수) 오후, 서울시청(본관) 8층 다목적홀에서 "건강한 미래를 위한 공평한 출발, 2018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공평한 미래를 열기 위해 인생의 첫 장을 여는 아이들에게 우리 사회가 무엇을 준비할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부디 심포지엄에 참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6월

서울특별시
서울아기 건강첫걸음 사업 지원단

사회 이경희 서울시 가족건강팀장

13:30~14:00	등록 및 전시	
14:00~14:05	인사말	서울시장
14:05~14:10	축사	한정열 한국모자보건학회 회장
14:10~14:30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의 도입과 확대과정	강영호 지원단장
14:30~14:50	사업인력 선발, 교육훈련과 슈퍼 비전	조성현 서울대 교수
14:50~15:10	사업의 구조와 제공 서비스	전경자 순천향대 교수
15:10~15:20	동영상 자료 시청	
15:20~15:30	휴식	
15:30~15:50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성과 평가	강영호 지원단장
15:50~16:10	사업의 효과성 평가 연구 결과	김유미 동아대 교수
16:10~17:40	종합토론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의 과제'	좌장 조홍준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교수

토론자

-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강은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 이인영 서울시 강북구 보건소장
- 이현미 세계일보 기자
- 박경옥 서울시 건강증진과장
- 손문금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장

